제 14 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초 보고

경계는 내부와 외부의 대명사

김시종

같은 한자의 숙어임에도 불구하고「경계」라는 단어에는 병립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국경이나 토지의 경계, 또는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와 다른 것과의 구분선입니다. 예를 들어「종교와 철학의 경계」와 같이 사용될 경우의 의미이지요. 거기에 더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난민의 문제도,「경계」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산(離散) 의식을 엄격하게 대치시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놓인 입장이나, 지위를 가리킬 때의 사용법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각자의 처지나 놓인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인과응보에 의해서 각자의 처지가 정해진다고 하는 불교 용어가 그 근원을 이루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전자를「교오까이(きょうかい)」, 후자를「교오가이(きょうがい)」로 발음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모국어인 우리말로는 같은 한자음의「경계」라고 밖에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미가 국경이나 땅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 국한됩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경계란 어디까지나 두 가지 의미가 병립되어 있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가 하나로 얽혀서 제 상념의 시야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개교한지 10 여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코리아 국제학원이라는 중고교의 학원장 직을 설립 당시부터 맡고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고, 확실한 학력과 풍부한 개성을 지닌 창조적 인간으로서 여러 국가와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경계인」의 육성을 건학 정신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넘어야 할 경계란 국경이나 지세적인 구획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경계란 왕래를 가로막고 버티고 선 벽을 의미합니다.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 장애인과 여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그 대부분이 개개인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스스로가 쌓아 올린 벽으로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우리 민족은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채 해방 이후 70 여년간에 걸쳐 대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망설임과 기피감 탓에 마주보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것이 일상이 되어 반목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상보다도 부푼 기대를 품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악수였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민족을 갈라놓은 군사경계선에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손을 마주잡은 것이 1 년전의 일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회담으로의 길을 터주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회담은 결렬되었고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그래서인지 남북대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움직임에 거센 비판을 퍼붓고 있는 반대세력이 아직도 군정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국내에 심적 경계를 만드는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혁명의 순혈승계라는 김일성 일족체제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경계는 말하자면 켜켜이 쌓인 벽들로 고정된 단층의 갈라진 틈과 같다고나 할까요. 타인의 주장을 먼저 들어주고,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법을 알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사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의지력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 앞에 긴 세월동안 변함없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막론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문학 예술가들의 공통의 책무가 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일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날선 기운이 지금 일본사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1965 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체제는 한일간의 흔들림 없는 연대를 과시해 왔지만, 이 조약이 안고 있는 내적 변형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라 양국 간의 경계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뚜렷한 주관이 없다는 점을 공공연히 비난하다시피 하고 있고,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문화인과 적지 않은 언론인들까지 그것이 한국 국민의 민족적 자질인 양, 쉽게 과격해지는 국민성이 반일감정을 부추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국민은 친일과 친일파를 분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츠루하시나 이카이노의 코리아타운은 최근 몇년간 일본과 조선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본 젊은이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인식 갖추지는 못했어도 K-POP 의 리듬은 드높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한일친선의 경계는 느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일본어와 관련된 표현행위의 문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내적 경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해방」이라고 불리는 해로부터 만 74 주년의 8.15 를 맞이합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청천벽력같은 「해방」을 맞이하여, 감성의 원천이기도 했던 소중한 언어인 일본어로부터 저는 처참하게 단절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언어상실에 빠져 제 나라 언어인 조선어를 허겁지겁 익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선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미묘한 의미를 짐작하게끔 했던 것은 다름아닌 저의 소년기를 형성했던 말, 식민지종주국의 언어인 일본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해 분석하고 재종합할 수 있는 것도 언어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 의식의 밑바탕에는 복잡한 인연으로 얽힌 특정한 언어인 일본어가 빼곡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일제의 굴레에서 70 년도 전에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식의 밑바탕을 이루는 일본어와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본어를 쓰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어는 검증되어야만 하는 제 존재증명의 눈금이 되기도 합니다.

제 <재일> 생활은 유려하고 정치한 일본어에 등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성적인 일본어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를 키워낸 일본어에 대한 보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일본어로 시를 써 왔으니 특히 사적 심정이나 사념의 표출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현대시와는 동떨어진 것이 저의 시였습니다. 말하자면 70 년 동안 저는 일본 시단 밖에서 시와 관계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술의 원천이라 불리는 시의 세계에서조차 재일조선인인 저는 분명 일본 시의 경계 밖에 놓인 조선인 시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시작(詩作)의 근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011 년 3 월 11 일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저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소재로 한 연작시를 써 왔습니다. 35 편 정도를 한 권으로 묶어 낼 생각이었습니다만, 지난해 2 월 초 심방세동을 동반한 심부전증으로 급히 입원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써 왔던 원전 소재의 작품을 병상에서 급하게 엮어 시집 『등의 지도(背中の地図)』를 간행했습니다.

연작은 27 편에서 중단됐지만 따지고 보면, 아니 생각할 것 까지도 없이 각지의 해변에서 백악의 성을 쌓아 올린 「원전」은, 그 지역 전체의 의사로 유치한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인 원전으로 마을은 풍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반원전" 의식의 발양은 이 마을, 이 지역 전체의 찬동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주장하는 "외부"의 요구이며, 위기감을 느낀 시민의식의 정의입니다.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부와 내부가 외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굴레야말로 "원전"을 단지 규탄하고 있는 저의 인식의 내부가 아닐까하는 생각에

뒤늦게나마 덧붙여 쓰고 있는 작품이 다음 시입니다.

형상 그대로(초출『수림 (樹林) 』새해('19)봄호)

그 땅이 아니라면/마주할 수 없는 외부가 있다./서 있는 위치에 비추어 바라보면 /지진 재해지는 단절된 외부의 이변이며/그 이변은 곧 /인적 재앙의 후미진 내부이기도 하다./관련없는 나의 생존권까지/가볍게 앗아간다.

처음부터 나는 제대로 알 지 못했다./그저 짐작할 뿐인 외부의 나에게/폐로는 곧 /만들어진 재앙의 제거였다./그 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이권은 지역의 이해와 얽힌 기대였던 것이다/한촌벽지에 자리잡은 /끝없는 희구의 집착이었다.

풍압이든 풍문이든 /그 땅만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다./외부의 형상 그대로/되밀어내야 할 위치에 나는 있다./흘러가는 계절이 움트는 계절을 내포하고 있듯/그 땅의 되살아남과 마주할 수 있는 나의 내부여야만 한다./그렇게 나는 그 땅이어만 하는 것을 /내 안에 간직하지 해야만 하는 /외부 사람인 것이다.

작년 가을 병상에서 일어난 나에게/후쿠시마산의 우엉 한 줄기가 살며시 다가왔다./자연의 은혜가 단번에 뽑혀 나왔다기 보다는/후쿠시마의 흙을 꿋꿋이 뚫고

나온/풍요로운 정성의 출현이었다./외부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것이 지금/짓누르는 무게를/대지 밑바닥부터 밀어젖히고 올라왔다.

빛의 가시도 아랑곳 하지 않는 듯/우엉의 형상 그대로 되밀어낸다/한 줄기 우엉일 수 밖에 없기에/형상 그대로의 재앙은 /외부로서 거기에 존재해야만 한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